



박소현의 섹.시.토.크

남편이 수영을 가르키기 시작했다. 아내인 K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더 기를 거야, 더 기르면 편찮아 질 거야, 과도기니까 좀 참아."



K의 남편은 유난히 털이 나지 않는 얼굴과 다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길러왔자 풀이 날 리 없었다. 열심히 길러도 철사를 꽂아놓은 것처럼 뻣뻣하고 불쌍사 나온 수영만 자라 꼭 지방 관아의 이방처럼 사람만 가벼워 보일 뿐이었다.

"얼굴이 그게 뭐야? 수영 좀 깎아."

보다 못한 K가 지나가는 말로 한 마디를 던졌을 때,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왜 보기 싫어?"

그런데 표정이 은근히 밝다. 아내가 자신의 수영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는 눈치였다.

"당연히 보기 싫지. 그럼 그게 보기 좋겠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지만 남편은 자신의 턱을 자랑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수영 깎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

K가 채근하자 그제야 남편은 슬쩍 진실을 털어놓았다.

"턱수영 기른 남자가 썩시하다며..."

그제야 생각이 났다. 얼마 전 TV를 보다 턱수영을 멋있게 기른 남자를 향해 썩시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적잖은 자극이 되었던 모양이다.

"그건 수영이 어울리는 사람한테나 해당하는 말이지, 당신처럼 고양이수영 나는 사람은 턱수

염이 안 어울려. 아니 턱을 덮을 만큼 기르기도 힘들잖아."

"당신이 몰라서 그런데 나도 턱수영 어울리는 얼굴이야. 두고 봐,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남편은 결코 수영을 깎을 생각이 없는 듯 보였다. K는 끔찍했다. 남편이 턱수영 비슷하게라도 가지려면 적어도 일년은 저 이상한 수영을 달고

결혼 십 년 동안 처음 대하는 모습이었다. 웃입는 스타일도 조금씩 달라졌다.

원래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엄전하게 입고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범저지 모자를 쓰고 야전 점퍼 분위기의 옷들을 사들였다.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K는 그 모든 것이 수영을 기르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편은 턱에 난 수영을 만지면서, 자신의 몸에서 끝없이 생성되고 있는 남성 호르몬의 존재를 각인하는 것 같았다.

결국 K는 남편에게 더 이상 수영을 깎으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서른아홉의 나이에 마치 막으로 부러 대는 호기를 그냥 허락하기로 했다.

비록 부부동반 외출은 줄어들었지만 K는 같이 외출하고 싶은 매끈한 남자와 지저분한 삼손 사이에서 기꺼이 삼손을 택했다.

<연예 칼럼니스트>

야성을 찾아서

리빙 센스

못 박기

벽에 못질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죠? 땀겨져 나오고, 힘을 주면 구부러지는 못... 종이 한 장만 있으면 간단히 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점은 종이 시멘트 벽에 못질을 하면 땀이 땀겨져 나오거나 뼈뺀 자게 박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종이를 여러 번 접은 다음 그 위에 못을 박아보세요. 구부러지지 않고 못이 박힙니다.

▲비누 땀이 잘 들이지 않을 때에는 비누를 몇 번 문질러 준 뒤 못질을 하면 좋습니다. 흠집이 적고 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종이테이프(마스크 테이프) 석고보드를 사용한 벽에 못을 박으면 석고가 갈라지고 떨어져 보기에 좋지 않죠. 이때 종이 테이프를 사용해 보세요. 벽에 열심자형으로 마스크 테이프라고 하는 종이 테이프를 붙여준 뒤 테이프가 교차하는 지점에 못을 박아 보세요. 깔끔하게 못질이 끝납니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월 25일(음 12월 18일 甲子)

36년생 고개를 숙여서 땅을 살펴봐라. 48년생 精神의 不便이 발생할 수 있고 49년생 財運이 열릴 수 있다. 60년생 모든 일에 불행이 나타날 수 있다. 72년생 친인척의 변동으로 걱정이 생길 수 있다. 84년생 計劃한 일은 잘 이루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21, 16

37년생 運轉만 없으면 결과는 좋다. 49년생 가까운 인사들로부터 財運을 당하거나 金錢과 金銀이 있다. 61년생 하찮은 문신만 조심하면 대운은 없다. 73년생 만나는 사람이 많아 오래가지 못한다. 85년생 극복되지 않는 어려움은 없다. 행운의 숫자: 05, 31

38년생 옛일이 나를 괴롭히나 큰일은 아니다. 50년생 외부의 일이 家庭에까지 騷亂으로 변하니 關心하게 살펴봐라. 62년생 처음에는 苦痛스러우나 나중에 便宜하리라. 74년생 執事한 진심으로 功 成就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07, 34

39년생 세 번 생각하고 말하면 미움은 없으리라. 51년생 運 轉은 빨리 떨어지면 새로운 것이 솟아난다. 63년생 財運이 財運으로 飛火 될 수도 있으니 注意를 경계하라. 75년생 愛人이 불안하다. 행운의 숫자: 20, 40

40년생 어려워 보여도 쉽게 解決한다. 52년생 手下人과의 關係는 절대 금하라. 64년생 肝膽과 胃腸의 關係를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리라. 76년생 새 문서를 친구가 가져오나 仔細하게 檢査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08, 25

41년생 가득 찬 倉庫가 모두 내 것은 아니다. 53년생 運은 있으나 만나지 못하고 안타깝게 뿐이로다. 65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肉實 있게 결성 된다. 77년생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행운의 숫자: 17, 37

42년생 차 조심 사람조심의 智慧를 갖으라. 54년생 미운 사람과 좋은 사람이 생긴다. 66년생 아늑한 보금자리이나 不便한 사람이 같이 있다. 78년생 가정과 직장사이에서 불행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慎重하라. 행운의 숫자: 09, 26

43년생 협조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일을 進進해간다. 55년생 積 功을 積累한 것은 격이니 큰 功이 있을 수다. 67년생 의외의 돈이 쉽게 사라진다. 79년생 運轉하는 새로운 運轉을 만날 기회가니 준비하고 있으라. 행운의 숫자: 14, 16

44년생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니 分數를 지키라. 56년생 家道安穩에 힘을 쓰라. 68년생 異性 보다 親戚을 만나라. 80년생 남을 높이면 自辱도 올라가니 남을 존경하라. 행운의 숫자: 15, 45

45년생 持續的인 안정이 있고 재복으로 가도안정을 찾는다. 57년생 夫婦사이에서 이해하는 대화와 자녀를 살펴봐라. 69년생 이 뜻을 살펴봐라. 81년생 개인의 절약은 국가 경제로 통한다. 행운의 숫자: 20, 45

46년생 재사가 순조롭고 주변의 도움으로 新事가 발생한다. 58년생 하루가 평안하니 周圍를 둘러봐라. 70년생 子女가 떨어져 살아가 할 境遇가 생기지만 좋은 일이다. 82년생 防風林을 만들어야 효과가 있다. 행운의 숫자: 12, 38

47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結果는 반반이다. 59년생 運轉 旅行으로 信賴를 잃었으니 주변인에게 믿음을 쌓으라. 71년생 집안은 평안하고 집 밖은 시끄럽다. 83년생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오니 準備하고 있으라. 행운의 숫자: 03, 29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더마플라스트 밴드.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검색절정 키워드

가수 故유니 1주기 등 스타 요절 이목 끌여

스타들의 요절이 이번 주 네티즌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21일 가수 유니의 1주기를 맞아 우울증과 악플에 시달리다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끊었던 고인의 홈페이지에는 "악플을 달았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행복하게 웃는 모습만 기억할게요" 등의 추모글이 잇따랐다.

다빈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영화배우 강희의 데뷔작 '내 사랑 유리아'가 개봉을 앞두면서 팬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할리우드에서도 슬픈 소식이 전해져왔다.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인상깊은 연기를 펼쳤던 히스 레저(28)가 지난 2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많은 팬을 충격에 빠뜨렸다. 영화 '의뢰인'의 프레드 렌프로그가 25살의 나이에 돌연사 한 지 불과 1주

일 만에 발생한 사건이라 안타까움이 더했다.

네티즌은 "훌륭한 배우가 허무하게 죽으니 너무 안타깝다", "천재는 요절한다고 하던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네티즌은 장국영, 이은주, 리퍼피나, 히데 등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요절스타 들을 추모하며 화려한 이면 뒤에 숨겨진 쓸쓸한 스타들의 모습에 관심과 안타까움을 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



지난해 우울증과 악플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수 유니.

바둑소식. 이창호와 윤준상 명인전 격돌. 이창호와 윤준상 9단이 국내 최대 규모의 기점인 제36기 하이원배 명인전에서 격돌한다. 이창호와 윤준상은 24일 서울시 한국기원 대국실에서 열린 대회 예선 4차전에서 각각 위에달랑 4단과 홍민표 6단을 물리치고 최종 예선에 진출했다.

손따라 둔 실착 6보(74~92). 흑 ▲와 백 74는 맞보기로 마지막 남은 큰 곳이다. 사실 중반에 접어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다음의 한 수가 이 판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한 수였는데 김영환군은 덜컥 흑 75로 손따라 두고 만다. 이 수가 백의 리듬을 살려준 수로 중반의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고 만 실착이 되었다. 흑 75로는 '참고도'의 흑 1로 치받

바둑소식. 이창호와 윤준상 명인전 격돌. 이창호와 윤준상 9단이 국내 최대 규모의 기점인 제36기 하이원배 명인전에서 격돌한다. 이창호와 윤준상은 24일 서울시 한국기원 대국실에서 열린 대회 예선 4차전에서 각각 위에달랑 4단과 홍민표 6단을 물리치고 최종 예선에 진출했다. 같은 조인 이들은 25일 결선 최종 진출자 7명을 선발하는 최종 예선전에서 맞붙는다. 24일 오후 6시30분 현재 최종 예선전에 진출한 프로기사는 조훈현·원성진·최명훈·박정상 9단, 백홍석·최원용·이재용 5단, 김지석 4단 등 11명이다. 이번 대회는 제한시간 각자 2시간, 초읽기 60초 3회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084>

Am I allowed to stay out past 10? 10시 넘어서 귀가해도 됩니까? A: Am I allowed to stay out past 10? B: What do you want to do? A: I want to go to the school dance. It will be over by 10:30. B: I guess that's OK. A: 10시 넘어서 귀가해도 됩니까? B: 뭘 하려고 하는데? A: 스쿨 댄스에 참가하고 싶거든요. 10시 30분 까지면 다 끝날 거예요. B: 그러면 편찮을 거야. * 제가 여기에 주차해도 됩니까? = Am I allowed to park here? * 오늘 밤 자동차를 사용해도 됩니까? = Am I allowed to use the car tonight?

오하오우 니혼고 <1084>

私寫眞寫(しゃしんうつ)り悪いから。 난 사진이 잘 안나오니까 A: 山田さん 寫眞(しゃしん)ができましたよ。 B: はずかしいわ。私寫眞寫(しゃしんうつ)り悪いから。 A: そんなことないですよ。ほら みてください。良く撮れてるじゃないですか。 B: この一枚、引(ひき)伸(の)ばしてくれませんか。懸縁(かぐぶち)に入れたいんで。 A: 야마다씨, 사진이 나왔어요. B: 부끄럽군요. 난 사진이 잘 안나오니까. A: 천만에요. 자, 보세요. 잘 찍히지 않았습니까? 원하는 것을 말해 주세요. 추가 인화할게요. B: 이거 한 장 확대해 주겠습니까? 액자에 넣고 싶어서요. はずかしい: 부끄럽다 寫眞寫(しゃしんうつ)り: 사진의 찍히는 상태 懸縁(かぐぶち)まし: 복사, 추가 인화 引(ひき)伸(の)ばす: 확대하다

니하오 쑹구위 <61>

为我们的友谊, 干杯!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건배! A: 这些菜都是谁做的? zhe xie cai dou shi shei zuo de? B: 都是我做的。你多吃点。 dou shi wo zuo de. ni duo chi dian. A: 来, 为我们的友谊, 干杯! lai, wei women de youyi, gan bei! B: 干杯! gan bei! A: 이 음식들 누가 다 만들었니? B: 내가 다 만들었으니깐 많이 먹어. A: 자~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건배! B: 건배! 菜 [cai] 요리, 음식 为 [wei] ~을 위하여 友谊 [youyi] 우정 干杯 [gan bei] 건배

한자 이야기 <671>

刹那(찰나) 절찰, 어찌나 刹那(찰나)는 산스크리트어의 '크사나(ksana)'를 음역한 말로 '생각이 스치는 한 순간'으로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굳이 한자어로 번역한다면 '일념(一念)'이 해당할 것이다. 불교에서는 손가락을 한 번 튕기는 사이에 65찰나가 흐른다고 한다. 그 정도로 찰나는 최소 시간단위로, 물리적으로는 1/75초라고도 한다.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에서는 '찰나'를 설명하여 "2명의 성인남자가 5000가닥의 명주실을 붙잡고 잡아당기고, 다른 한 성인남자는 강도(剛刀)로 단숨에 그것을 잘라낼 때, 1가닥을 잘라내는 데 64찰나가 경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1찰나가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를 상상할 수 있는 자료이다. 불교철학에서 '찰나'는 물질적·정신적, 특히 정신적 현상이 순간적으로 생겼다 멸하고, 멸했다가 생기면서 계속되어 가는 것을 설명할 때 많이 쓰인다. 모든 존재가 찰나에 생멸(生滅)을 계속하는 것을 '찰나생멸(刹那生滅)' 또는 '찰나무상(刹那無常)'이라고 한다. 과거란 현재의 1찰나 앞이고, 미래는 앞으로 올 1찰나라고 말할 수 있다.